성악 초등부 — 홍승연 광주교대 교수

참가자들 곡 해석 탁월한 재능 보여

참가자 대부분은 정확한 소리의 위치와 바른 호흡으로 가락 안에 숨겨진 음정과 리듬을 매우 정교하게 연주해 냈다. 또 심한 도약 부분에서도 무리 없이 좋은 음질을 유지하는 테크닉을 구사했다. 몇몇 친구는 굉장히 곡 해석에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피아노 반주와 노래 소리의 균형이 무너져 앙상블의 아름다움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표현이 너무 과장돼 청중과의 소통이나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비록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리 속에서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더 공감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컸다.

무대 매너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장된 제스처나 자세, 어색한 율동, 그리고 가사 처리에서의 불필요한 모음 변화 등은 오히려 음악을 산만하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의 표현력과 청중과의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악 중·고등부 — 김용진 전주대 교수

저음과 고음 연결 불안 해소 노력을

변성기인 중등부 학생들은 노래하기에 상당한 애로를 겪으리라고 본다. 참가 학생들도 예쁜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로 인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대체로 소리가 닫혀 있고 저음과 고음의 연결이 불안하며 가사 전달에 문제가 보였다.

고등부는 역시 중등부에 비해 소리와 노래가 더 영글고 더 다듬어진 연주를 보여줬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 하나는 소리가 어둡고 입안에 갇혀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듣기에 답답하고 가사 전달이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노래의 흐름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더 소리를 밝게 내고 목 안을 열어야 하며 안면에 소리가 모아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가사의 모음을 순수하게 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복식 호흡을 잘 익히고 숨을 안정적으로 내쉬며 노래 할 수 있을 때 각 악구의 연결뿐만 아니라 전체적 노래 흐름이 원활할 것이다.

관악 — 이승호 인제대 교수

고등부 테크닉 전문연주자 못지 않아

전체적으로 소리의 음색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심사를 하는데 많은 신경이 쓰였다. 고등부의 경우 노래와 빛깔, 테크닉들이 전문연주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보여줬다. 중등부 역시 몇몇 학생들은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줬다.

아쉬운 부분은 초등, 중등부에서 어린 나이에 소화하기에는 힘든 곡들을 연주한 점이다.

오보에, 클라리넷 부문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연주했다.

트럼펫과 트럼본에서는 좋은 소리와 좋은 음정들을 갖고 있으나 테크닉적인 실수가 많았다.

특히, 고등부에서는 높은 음정에서 실수들이 많았다. 콩쿠르, 입시에서는 실수가 점수에 큰 작용을 한다. 실수는 대부분 연습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성을 갖고 있으나 실수가 잦은 것이 아쉬움이었다.

현악 — 김농학 목포대 교수

비올라·콘트라베이스 적어 아쉬움

올해도 현악독주부문에 재능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실력을 겨뤘다. 어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부 3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별로 다양한 악기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기량들을 보여줬다.

단지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량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곡들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감점을 받게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생 능력을 잘 평가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곡목을 선정해 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콩쿠르는 작년에 비해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아직도 바이올린이나 첼로에 비해서 비올라나 콘트라베이스같은 악기들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것 같다. 이러한 악기들은 대학 오케스트라나 기성 오케스트라에서는 꼭 있어야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같다.

피아노 초등부 — 홍경자 전주기전대 교수

지나친 터치로 소리 균형 깨지 말아야

호남예술제에서 심사해 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봐왔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탄생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회 지정곡인 모차르트, 흠멜 작품은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보여야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과격한 터치로 소리의 균형이 깨져 거친 소리로 연주하는 학생이 있었다. 또 슈베르트 작품은 프레이즈 연결구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만 보완한다면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은 실망하지 말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정진하길 바라며 입상자들도 더욱 노력해 세계적인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란다.

피아노 중·고등부 — 허정화 순천대 교수

다양한 작품 자주 들어야 균형잡힌 연주

이번 호남예술제 피아노 중·고등부는 어려운 지정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아직은 자라고 갖추어가는 과정의 학생들인지라 음악적 성장을 응원하고자 굳이 한두 마디의 도움말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작품을 들어야한다. 우리 학생들이 단지 주어진 과제곡을 반복 연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듣고 접해보면 훨씬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곡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적 요소는 그의 작품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지하고 균형잡힌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한다. 연주에 있어서 테크닉과 독창적인 해석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음색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 짜여진 아름다운 소리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적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무용 — 박선욱 광주여대 교수

주제의식·무대 활용 새 시도 돋보여

2016년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부문은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무대였다. 주제의식과 무대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군무의 경우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한 비전공자들이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 비록 안무 구성과 기량 면에서 전공자와 차이는 보였지만 앞으로 무용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수상작품 중 교육적 측면에서 제목 정정을 논했던 작품이 있었다. 최근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춤을 추는 대회이므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아쉬운 점은 동아무용콩쿠르 등의 수상작이었던 전형적인 '콩쿠르형' 작품 구성이, 올해도 하나의 현상처럼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의 유명 콩쿠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는 반면, 우리 지역에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아쉽다.

현대실용무용 — 임지형 조선대 교수

군무 박진감 넘치는 동작·호흡 인상적

호남예술제는 오랫동안 지방 무용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무용 예술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무용계를 이끌 초석이 될 인재들의 경향을 진단하는 한 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은 작년에 비해 참가자가 적었지만 초등부를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등으로 분류해 대회를 치른 것은 연령별 발전 단계를 잘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회 참가 학생들들 개개인의 테크닉과 감정 표현은 눈에 띄었으며 특히 주제와 무브먼트 연결 부분은 조화로웠다. 또 군무진들의 경우 무대를 장악하는 박진감 넘치는 동작과 호흡이 인상적이었으며 무용수들 간의 감정 교감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경연자들의 열정이 인상에 남는다.

앞으로도 미래의 무용 꿈나무들이 개인의 꿈과 희망, 열정을 담아 품어내는 호남예술제가 무용인들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

발레 — 정희자 광주교대 교수

초등부 정서 맞는 창작작품 많아 흐뭇

예년에 비해, 올해 발레부분 참가자가 많아졌다. 예술인으로서, 무용인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이러한 변화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예술 영재를 발굴해 내는 예술제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발레부문 심사에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력을 발달시키면서 올바른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체적 성장 정도나 정서 표현에 알맞은 창작 작품들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점이 흐뭇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발레부문에는 눈에 띄는 발레 영재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이 꾸준한 테크닉의 훈련과 성장으로 눈부신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노고를 격려하고 싶다.

중·고등학교 부문 역시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었다. 힘든 테크닉 훈련과 꾸준한 체력 관리와 열정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기량들을 내년에는 기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악 —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침향무·적념 등 수준 높은 창작곡 주목

기악, 병창, 산조, 풍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지닌 출전자들이 대회를 빛나게 해줬다. 대회 출전은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입상에 이르지는 못한 학생들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정신과 소득을 보다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악분야에서는 전통 산조나 정악에 머무르지 않고 '침향무', '적념' 등 수준 높은 창작곡이 눈에 띄었다. 병창분야 역시 다수의 창작작품이 출전돼 우리 고장이 과거 못지 않게 현재에도 새로운 예술영역을 개척하는 창의적인 고장임을 느끼게 했다.

또한, 타악 분야에서는 판굿이나 설장구놀음 등 성인들도 구성하기 힘든 작품을 선보여 주최측과 심사위원들을 기쁘게 해줬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완도군 노화면 섬에서 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기량과 풍기는 예술적 자태가 훗날 분명 한 시대의 예인으로 우뚝 설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합창 — 김미정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화합·사랑·배려 잘 발휘된 경연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지휘자와 한마음 한뜻이 돼 자기팀의 영예를 위해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합창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화합과 사랑, 배려, 하모니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예술성을 높여야 하는 순간 예술이다. 이번 합창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대로 발휘된 합창제의 모습이였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송원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이 소화해 내기에 힘든 곡들과 발성을 지휘자의 능력으로 평가할수 있게끔 잘 표현 했다. 또 퍼포먼스 또한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곡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켰다. 물론 함께 참여한 다른 팀들도 그에 못지 않았지만 다만 그들에게 연습기간이 좀더 주어졌더라면 아마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연이 됐을 것이다.

끝으로 감상하는 관객들도 무척 진지했으며 그들의 힘찬 격려와 박수가 참가했던 꿈나무들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선사했을 것이다.

합주·중주 — 김연주 초당대 교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팀 많아 보람

올해의 합주 부문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팀들이 많이 참가했다. 대체로 현악기와 관악기의 셈여림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지휘자의 지시에 잘 반응하였다.

특히 송원초등학교 관현악 합주의 현악기 수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관악기의 목관과 금관 파트 솔로 악기들은 음정과 호흡 콘트롤에 더 신경을 써서 연습한다면 훨씬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 것같다.

전북 장수 번암 초등학교 관악 합주팀은 자유곡 2곡을 모두 암보로 연주했고 깨끗한 톤과 절제된 앙상블이 인상적이었다. 또 지휘자의 정확한 비팅에 전체적인 음색도 좋았다.

그 외 앙상블팀은 최선을 다해 연주를 하였으나 정선율과 대선율의 균형과 조화가 생동감 있도록 보다 선명하고 의욕에 찬 연주를 하면 좋겠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과 변화가 돋보이는 경연이었다.

실용음악 — 배창희 남부대 교수

중·고등부 보컬 부문 탁월한 재능

실용음악은 언제 어디서든지 실제로 연주해 즐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며, 아티스트의 감성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음악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참가 학생들을 보면 그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았다. 특히, 초등부 기악부문은 예년과 다르게 참가자 수가 적었다. 이것은 요즘 사회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다. 학교 교육에서 예체능 과목 축소의 한 결과로도 보인다.

중·고등부는 보컬 부문에서 탁월했다.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창법이나 스타일을 창의적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연예인을 닮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학생들의 순수한 감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표현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였다.

더불어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부문이 발전을 위해서 그룹사운드 또는 아이돌 그룹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중창 부문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술 — 강남구 서양화가

창의력·표현력 갈수록 발전 향상 뿌듯

출품작들을 심사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 영역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 또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 많아 심사위원들이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했다.

초등부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중등부는 작품의 성실함, 고등부는 표현과 기술적인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표현한 작품과 너무 기교적이지 않은 열정을 가진 작품들에 점수를 줬으며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잘 표현했는 지 전체 화면의 구성과 색의 배치 등이 짜임새 있는지, 감정 표현력이 풍부한지 등도 두루 확인했다.

고등부 최고상 박한수 학생의 작품은 동물원 철창 안의 원숭이를 그림자의 명료하고 밀도 있는 선으로 묘사, 현실감과 상황 전개가 잘 표현되었으며, 중등부 정다빈은 계단과 주변 자연 풍경을 동적인 구도로 이끌어낸 탁월함이 돋보였다.

만화·일러스트 — 장승태 순천대 교수

기교적 수준은 높았지만 독창성 아쉬워

출품작 300여점 중에 기본적으로 부족한 작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서 미래 문화시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특히, 최고상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3작품은 내용과 스킬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세월호 비극을 절묘하게 주제와 접목시킨 칸 만화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점을 높이 사 최고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교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내용의 독창성이나 구성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다 창의적 상상력에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만화건 일러스트건 캐릭터건 단지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내면의 울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력과 작품 내용을 생각하면 모두에게 상을 줘야 마땅하다. 이번 호남예술제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확인 한 만큼 다가오는 문화시대에 문화생산자로서의 소명을 상 대신 부여하고 싶다.

작문 — 이원화 소설가

초등생 상상력·공감 능력 깊은 울림

학생들 작품을 보며 상상력을 키우고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상력이 고갈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다.

산문 부문 최고상 영예를 안은 문현지(송원초 3) 학생의 '진공청소기'는 진공청소기에 완전한 생명을 불어넣어 가족들의 이미지를 잘 형상화했다. 문 학생의 작품은 상상력과 공감 능력 등이 단연 뛰어난 작품이었다. 가족들을 위해 늘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청소기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은 전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운문 부문 이서현 학생(경신여고 2)의 '그림자'는 재개발로 동네 불빛이 사라지고 거미줄마저도 없어진 판잣집을 밝혔던 불빛이 꺼진다는 시적 발상과 표현을 통해 우리들의 현실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 고등학생으로서 사회 현실 문제에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희망을 가져본다.